

‘월간 중앙’ 불교 편취기사 교계 항의 확산

조계종·종단협 등 잇따라 항의방문 사과 촉구

<월간중앙> 8·9월호에 게재된 불교 편취 기사와 관련 불교계의 항의가 점점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종단협의회(회장 법장)와 ‘월간중앙 불교 편취규탄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광)’ 스님들은 8월26일 오후 6시 ‘월간중앙’ 권영빈 발행인을 만나 불교계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권영빈 발행인은 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직할교구 상임위원회 소속 스님들과 조계사 신도들이 8월 22일 <월간중앙>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23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중앙일보사를 찾아 항의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년,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 스님 등은 중앙일보 장경태 경영지원실장을 만나 △5대 일간지 공개 사과문 게재 △월간중앙 대표이사 편집국 등 사퇴 △<월간중앙> 조속 폐간 등을 요구했다.

또 24일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100여명이 중앙일보사와 월간중앙을 잇달아 항의방문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 등은 이장규 월간중앙 대표이사 등과 만나 △공중파 및 일간지에 사과문 발

표 △<월간중앙> 8·9월호 전량 수거 △월간중앙 대표이사, 사장, 편집장, 9월호 기사 작성 기자 사퇴, 8월호 연재자 종단 방문 108참회 △정신적 물질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월간중앙 불교 편취 규탄 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월간중앙>이 스님과 불자는 물론 종단과 한국불교 전체를 파렴치한 집단, 부도덕한 역사와 교리를 가진 종교로 매도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종무원들의 모인인 원우회(회장 양진수)도 24일 성명서에서 “중앙일보와 월간중앙은 언론권력이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이에 항의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무책임한 태



중앙일보사 정문에서 ‘월간중앙’ 규탄공동대책위 스님과 신도들 2백여명이 8월26일 월간중앙의 불교편취 기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도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건은) 우리 사회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사건이며, 선정적 선동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신앙과 정신을 좁める 행위로서 언론으로서의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월간중앙 대국민사과 및 책임있는 조치 실행 △중앙일보사 대국민사과, 재발방지 약속, 월간중앙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신속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월간중앙> 8월호 ‘사람 살리기’ 주로 하시는 스님 어찌 나를 이

리 죽여주시나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큰스님이 수간(懺)을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월간중앙> 9월호에는 ‘조계종 4대 의혹을 캔다’라는 제목으로 ‘2003년 총무원장선거 때 양 캠프 돈 얼마나 뿌렸나?’ ‘불교박물관 공사비 2배 뺏겨진 이유’ ‘화엄사 M주지 비리 등 검찰 수사 어디로 가고 있나?’ ‘아파트 공사예까지 미친 추문의 진상은?’ 등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9월호 기사를 쓴 고성표 <월간중앙> 기자는 20일 ‘허위나 왜곡 사실이 없다. 기사에 대해 충분한 증거도 있고 미확인 내용도 더 있다’고 밝

부다피아 홈페이지 미용 커뮤니티 ‘눈길’

불교TV에서 분장·헤어·의상 팀장으로 활약한 스타일리스트 김경숙씨가 불자들을 위한 ‘여성 미용상담’(cafe.buddhanews.com/community/kgsook) 커뮤니티를 부다피아에 개설했다. 김경숙의 ‘여성 미용 상담’은 여성 미용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여성 피부관리, 코디법, 헤어관리, 불교행사에 맞는 특수 분장 등을 실용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피부관리 코너도 마련했다.

특히 특수 분장은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서 축적한 실력을 원하는 모든 이들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개설했다. 김경숙씨는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누기 위해 이번 커뮤니티 개설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경숙 기자

송광사 장애아시설 수탁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가 순천시로부터 장애아동 전담시설을 수탁했다. 송광사는 8월 12일 순천시와 2007년 12월까지 순천시 서면 ‘순천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시설 개소를 앞두고 있다. 정식 개소는 10월 중순경. 송광사의 이번 시설 수탁은 지역 최초의 장애아동시설이라는 점과 조계종 승보종찰인 송광사가 지역 사회를 위해 나섰다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대지 601평, 연면적 235평 2층 건물로 야외수영장·보육실·치료실 등을 갖춰 지역 장애아동 60여명을 책임지게 된다.

종교재정 투명화 포럼 9월6일 우리 함께 회관

참여불교재가연대와 개신교, 가톨릭 단체 등으로 구성된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는 9월 6일 우리 함께 회관에서 ‘투명사회와 종교재정의 투명성,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열린포럼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종교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특히 최근 각 종교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 투명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조계사 영산재 22일 입제

올해로 3년째인 조계사 영산재가 10월 9일 봉행된다. 조계사는 8월 22일 입제해 10월 9일 법배시연을 끝으로 3년 동안 계속해 영산재를 회향한다. 그동안 조계종은 타종단에 비해 빈약했던 불전시설의 전형을 세운다는 목표로 법배를 비롯한 영산재의식 재현에 힘써 왔다. 영산재를 주관하는 동주 스님은 “영산재 동참으로 불교의식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바자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조계사 앞마당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여성의류 1만 여점이 판매되며, 이는 전액 종로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체 시설 건립에 쓰여질 예정이다. (02)723-5101

김강진 기자

“10·27법난 진상규명” 삼보 스님 복부 자해

1980년 10·27 법난 당시 간첩으로 몰려 갔던 고초를 겪었던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삼보 스님(당시 평창 상원사 주지)이 8월 23일 열린 ‘10·27법난 피해자 증언보고회’에서 “법난 진상을 규명하라”며 복부를 자해했다. 삼보 스님은 “정부 차원에서의 규명은 물론 불교계 자체적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해 직후 삼보 스님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50여 바늘을 꿰맨 후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27 법난 불교대책위 상임대표 삼보 스님은 “삼보 스님의 자해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책임 있게 법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 팔달사 주지 성해 스님(당시 제주 천왕사 주지)과 한영수 법난 당시 문화공보부 총무과장, 이견호 법난 당시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등이 법난 당시의 경험을 증언했다.

유철주 기자

‘현등사 3층석탑 사리구’ 제집 돌아올까

현등사 반환 신청...삼성 ‘소장 경위 문제 없어’

삼성이 점유하고 있는 현등사3층탑 사리구가 현등사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가평 현등사주지 초계가 삼성문화재단 이견희 이사장을 상대로 삼성문화재단이 점유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구 일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서부지법민사부에 제출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등사가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사리구는 은제원통형사리함(銀製圓筒形舍利盒), 수정제사리호(水晶製舍利壺), 사리 2과(舍利 2顆)로 구성된다. 사리함 표면에 1470년 영성대군(세종대왕의 아들), 사위, 딸의 시주로 현등사탑에 봉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현등사 것이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매년 도록에도 현등사석탑사리구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리구를 잃어버린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현등사는 민사조정신청에서 “사리라는 것은 시신을 화장한 후 얻어

지는 인체의 일부며, 사리를 담은 사리함은 관곽과 같은 용도로 사리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현등사라는 명분이 있어 현등사 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문화재단측은 “1981년 김동현 옴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소장 경위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조민사조정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등사의 교구부사인 봉선사의 해문 스님은 “소송을 통해 분쟁의 대상을 삼는 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져 민사조정신청을 내게됐다”며 “삼성이 반환요청에 응해 현등사3층탑 안에 다시 안치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등사3층석탑은 1926년 간행된 <봉선사 분말사지>에 도선국사탑으로 명시돼 있어, 현등사측은 사리의 주인공이 도선국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권

한대행 김의정)는 8월 23일 논평을 통해 “삼성문화재단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리구 일체는 현등사 3층석탑에 봉안되어 있다가 도난당한 것”이라며 “현등사 사리구 일체가 적법하게 반환이 될 때까지 2천만 불자들의 힘을 모아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익순·유철주 기자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부지 임대 승인요청 반려

조계종은 지난 2월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가 요청한 케이블카 건설 부지 임대 승인 요청을 반려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조계종은 공문을 통해 “토지임대 승인 신청이 접수된 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불법으로 진행된 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철거와 공사 중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유철주 기자

자비 땀방울에 번뇌 ‘흠흠’

철도공사 불자회, 은석사·부처님마을서 봉사

“직장에서 만났던 법우님들과 함께 봉사하며 땀 흘릴 수 있어서 너무 좋어요.”

김홍식 한국철도공사 민원실장, 그는 휴일 대신 택한 봉사활동이기에 이웃을 위해 흘린 땀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냈다. 한국철도공사 불자회가 8월 20일 충남 천안 은석사와 장애인보호시설 부처님마을에서 펼친 자비의 봉사활동에서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30여 회원들은 지게와 배낭을 메고 1.2km에 달하는 은석산 아래에서 은석사까지 기와를 날랐다. 그들이 나른 기와는 총 200여장. 힘든 노동이었지만 힘을 북돋우는 도반들의 격려에 한걸음 한걸음 산길을 올랐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값진 도반들의 배려와 법우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은 다음 행선지인 장애인보호시설인 부처님마을에서 시작됐다. 약간의 성금을 준비했지만,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고서 그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철도불자들은 시설 곳곳에서 자라는 풀을 뽑으며 “모든 철도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월간중앙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모연문

귀의 삼보하옵고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월간중앙은 지난 8월호 9월호 연속 두 번에 걸쳐 불교계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왜곡, 편취함으로써 불교계가 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가 인수한 일간스포츠(2005년 8월 24일자) 14면 ‘안다스런’이란 만화(글·그림 남정훈)에서의 도적이고 충격적인 불교 모욕의 내용을 담아 발행하였습니다.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삼류도색잡지로 전락한 월간중앙은 불교에 대한 테러를 중단하고 스스로 폐간을 단행하는 것이 그나마 양심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은 물론 종단과 한국불교 전체를 파렴치한 집단, 부도덕한 역사와 교리를 가진 종교로 매도한 월간중앙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려 합니다. 불자들에게서는 파사현정의 마음으로 호법신장이 되어 불교살리기 불사에 동참하시기를 앙망합니다.

1. 거대 재벌 언론 월간중앙을 상대로 불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2. 월간중앙 불교 편취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언론편향 대책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와 평화공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0억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배상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모연에 참가하실 불자님들께서는 1만원을 아래 계좌번호에 접수하시거나, 월간중앙 불교 편취 규탄 공동대책위 사무실(총무원 청사 1층), 월간중앙 사무실 천막농성장 모금함에 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중앙과 5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인지가대가 1천 8백 5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50억×0.0035+55만 5천원). 이에 월간중앙 불교 편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천만 불자 하나, 하나의 힘을 모으기 위하여 스님, 신도로부터 공히 1만원 이상을 모연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 위해서는 1806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물론 동참하는 분이 늘어날수록 배상액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방의 원로대덕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은 월간중앙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지키고 불교계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 통장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056054 (예금주 정진용)
- 대책위 전화번호 : 02)2011-1861, 1862 / 팩스 02)2011-1863

월간중앙 불교편취 규탄 공동대책위원회